

“코로나 위기 이겨내자”...해외 스포츠 스타들 ‘통큰 기부’

페더러 12억5000만원 쾌척
맥그리거·레반도프스키 13억씩
저역 성금 등 기부 릴레이 이어져

구단 직원들 고용 안정 위해
분데스리가 선수들 연봉 삭감
PGA 참관 못한 장애인 소년에게
유명선수 3명이 깜짝 선물도

해외 스포츠 스타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거액의 성금을 내놓는 등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선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클럽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이 연봉 삭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통큰 기부=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스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 스위스프랑(약 12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페더러는 26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내 미르카와 함께 스위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00만 스위스프랑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간”이라며 “누구도 낙오해서는 안 되며 모두 함께 도와서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건강을 잘 지켜주세요”라고 팬들에게 당부했다.

스위스에서는 확진 환자가 1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50명 이상이 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편이다.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의 간판스타 코너 맥그리거(32·아일랜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모국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국 BBC는 이날 “맥그리거가 아일랜드의 파스칼 도노호 재무장관과 트위터 대화를 통해 100만유로(약 13억원) 기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맥그리거는 아일랜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렌스터의 의료진을 위한 방호 물품 구매에 써달라고 요청했다.

맥그리거는 전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국경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에 나서고 있다.

다른 모든 전 세계 프로 스포츠처럼 UFC 역시 코로나19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UFC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계획이던 ‘UFC 파이팅 나이트 171’을 취소한 데 이어 29일과 4월 12일까지 예정된 3개 대회를 연기했다.

다만 UFC는 4월 19일에 잡힌 UFC 249만은 어떻게든 장소를 찾아서 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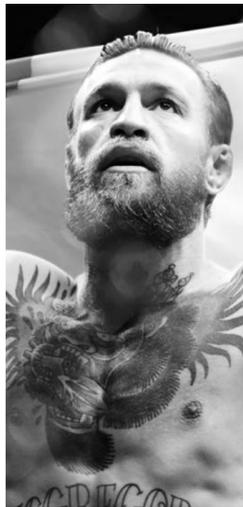
UFC 249 메인이벤트에서는 하비프 누르마고메도프와 토니 퍼거슨이 맞붙는다.

◇장애소년에게 깜짝 선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대회 참관 소망을 이루지 못한 장애인 소년에게 유명 선수들이 깜짝 선물을 전달한 훈훈한 사연이 화제다.

저스틴 토머스, 찰리 호프먼(이상 미국), 이언 폴



페더러



맥그리거



레반도프스키

터(잉글랜드)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 하비에 사는 페너지오티 부스두코스(9)에게 특별 제작한 골프 신발을 택배로 보냈다.

이들이 부스두코스에게 이런 깜짝 선물을 보낸 사연은 이렇다. 부스두코스는 선천성 사지 이상이라는 장애를 지녔다. 태어난 이후 8번이나 서로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았다. 특히 오른쪽 발은 왼쪽보다 훨씬 커서 걷기조차 쉽지 않다.

이런 장애를 갖고도 부스두코스는 퍼스트티 재단의 어린이 골프 교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열렬한 PGA투어 팬이 됐다.

부스두코스의 집 근처에서 열리는 PGA투어 발스와 챔피언십을 손꼽아 기다렸다. 좋아하는 선수의 스윙도 보고 사인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발스와 챔피언십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열리지 못했다.

큰 실망을 한 부스두코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웃사촌인 토머스, 호프먼, 폴터가 부스두코스의 마음을 달래주기로 뜻을 모았다.

부스두코스의 발에 꼭 맞는 골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골프 신발 전문 브랜드 풋조이에 의뢰했다. 부스두코스의 골프 신발을 만들어줬던 풋조이는

부스두코스의 발 모양 자료를 갖고 있었다.

토머스와 호프먼, 폴터는 신발을 배달하면서 부스두코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페너지오티! 너는 골퍼가 된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줬단다. 언제나 너를 응원하마!”

◇구단 직원위해 연봉삭감=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자 선수들이 연봉 ‘자진 삭감’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6일(한국시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일시적인 연봉 삭감에 동의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클럽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BBC는 “뮌헨 선수들은 급여의 20%를 삭감하기로 했고, 도르트문트 선수들은 임금의 일부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8일 이후부터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에는 뮌헨글라트바흐 선수들이 분데스리가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 삭감을 선언한 가운데 유니온 베를린 1군 선수들은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기한 임금 전액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더불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의 기부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100만유로(약 13억원)를 기부한 가운데 팀 동료인 레온 고레츠카와 요주아 키미히는 ‘위 킥 코로나(We Kick Corona)’ 캠페인을 위한 기부 마련에 100만 유로를 쾌척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개최 1년 연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친선수촌이 휴촌에 들어간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앞에서 김택수 탁구 남자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집으로’...올림픽 연기에 선수촌 잠시 퇴촌

도쿄올림픽이 1년 후로 연기되자 훈련에 매진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잠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떠나 휴식에 들어간다.

탁구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가 26일 오전 가장 먼저 선수촌을 떠났고, 남녀 양궁 대표팀, 수영 다이빙, 레슬링, 핸드볼 등 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태극전사 204명이 집으로 향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연기 후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간 외출·외박 통제 스트레스를 받던 선수·지도자에게 여유를 주고자 26일 친선수촌의 운영을 멈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500여명은 26~27일 이틀에 걸쳐 선수촌을 떠나 집 또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휴식과 훈련을 병행한다.

체육회는 이 기간 선수촌 방역을 진행하고 올림픽 연기에 따른 재입촌 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 제고를 위한 대책도 세운다.

대부분이 자신의 차량으로 선수촌을 떠났고, 개인 차량이 없는 일부 선수의 경우에는 가족이 나와 데려갔다.

또 국군체육부대, 한국체대는 소속 선수들을 데우기 위해 차량을 선수촌으로 보냈다.

체육회는 선수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적으로 동참해 외출·모임·종교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종목 대표팀 감독과 코치들에게 매일 선수들의 건강을 점검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27일에는 역도, 기계체조, 태권도, 사격, 유도 등 290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퇴촌했다.

선수과 지도자들은 3주 후부터 선수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2주간의 격리와 검사 음성 판정을 체육회에 제출하고, 강화한 입촌 검사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5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산남부스포츠클럽 산학협동 시스템 호평 순천스포츠클럽 알찬 프로그램 등 돋보여

대한체육회 성과평가 ‘A등급’

광주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은 남부대 시설을 활용하는 산학 협동 시스템으로 운영돼 이용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순천스포츠클럽은 알찬 운영 프로그램을 재정 건전성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 2019 스포츠클럽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최근까지 8개월에 걸쳐 전국 76개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인프라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 선수 양성, 커뮤니티 운영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2019년 스포츠클럽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 주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도시형’으로 2015년과 2018년 각각 설립된 세한스포츠클럽과 강진스포츠클럽 역시 스포츠클럽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BB등급’ 평가를 받았다. /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6월말 개막 워블던테니스 개최 여부 다음 주 결정

무관중 경기는 고려하지 않아

6월 말에 개막할 예정인 워블던 테니스대회의 정상 개최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된다.

워블던을 개최하는 울링글랜드 테니스클럽(AELTC)은 26일(한국시간) “다음 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올해 워블던 테니스 대회 개최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워블던 테니스 대회는 6월 29일부터 2주간 영국 워블던의 울링글랜드 테니스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국은 23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내고 필수품을 사기 위한 쇼핑, 운동, 치료, 필수적 업무를 위한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확진자가 9000명을 넘고, 사망자 역시 400명이

상이 됐으며 25일에는 왕위 계승 서열 1위 찰스 왕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워블던 테니스대회는 연기 또는 취소 중 하나를 택해 발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상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울링글랜드클럽은 “무관중 경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77년 창설된 워블던 테니스대회는 세계 1, 2차 대전의 영향으로 1915년부터 1918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두 차례 기간에 열리지 않은 바 있다.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1월 호주오픈은 정상적으로 끝났으나 5월 프랑스오픈은 이미 9월로 미뤄졌다.

워블던에 이어서는 8월 31일부터 US오픈이 열리고, 9월로 미뤄진 프랑스오픈의 개막 예정일은 9월 20일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월드 워 Z
3관	주디, 작은 아씨들
4관	인비저블맨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정직한 후보
7관 씨네커를	인비저블맨, 스타 이즈 본 미드나잇 인 파리
8관 씨네커를	1917, 다크 워터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벤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